

# ‘더 웅장하고 화려해진’ 나주 빛가람 호수공원 음악분수

총길이 78.8m 음악분수 보수·증설 완료... 10월 15일까지 매일 3회  
시원한 물줄기·경쾌한 음악·화려한 조명 콜라보 야간 분수쇼 기대

나주 혁신도시 음악분수가 새 단장을 마치고 더 화려해진 물줄기를 내뿜는다. 나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전환에 따라 지난 4일부터 빛가람 호수공원 음악분수 운영을 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한 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음악분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3달

간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총 3회에 걸쳐 오전 12시, 오후 8시부터 9시까지(20:00~20:20, 20:40~21:00) 1회당 20분씩 운영한다. 단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인 접촉 최소화 차원에서 바다분수는 당분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음악분수는 국내 호수공원 중 3

번째로 큰 규모인 빛가람 호수공원의 명물로 지역민의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야간에는 시원한 물줄기, 경쾌한 음악에 화려한 조명이 더해져 매력적인 자태를 뽐내며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나주시는 음악분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사업비 22억원을 들여 음악분수 보수·

증설 공사를 추진, 6월 15일 완료했다. 새 단장을 마친 음악분수는 기존보다 30m늘어난 총 길이 78.8m(폭 2.7m~8m)에 달하는 초대형 분수대로 조성됐다. 여기에 최대 100마력을 출력하는 수중 모터 장치를 비롯해 레이저 빔 프로젝터, 워터스크린 등 최신 영상 설비를 탑재해 화려한 영상 퍼포먼스 선보인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빛가람 호수공원 규모에 걸맞는 독창적이고 웅장한 음악분수 조성을 통해 혁신도시 관광 랜드마크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자제 거리두기 등 기초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 장성군, 푸드플랜 성공 추진 위해 농가 조직화 나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마을 순회 좌담회 재개



장성군이 푸드플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농가 조직화에 나섰다. 군은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하기 위해 ‘푸드플랜 마을 순회 좌담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성군은 지난 6월부터 7월 초까지 지역 내 95개 마을에서 좌담회를 가졌다. 이후 인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일시

중단한 바 있다. 군은 10일부터 다시 좌담회를 열고 9월까지 329개 마을을 방문할 계획이다. 장성 푸드플랜의 중간지원조직인 먹거리사업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팀이 마을 주민들을 직접 찾아 푸드플랜과 로컬푸드 참여 사례 등을 설명해 준다. 또 영농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와 푸드플랜 참여 농가

모집 활동도 펼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푸드플랜은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며 “농업인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 건설한 푸드플랜 농가 조직화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푸드플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추후 출하자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에게는 출하 자격이 부여되며,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센터, 각종 직거래 행사 등 다양한 판로를 이용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푸드플랜은 먹거리에 관한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계획하는 종합 전략을 일컫는다. 소비자의 식탁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기동취재본부

## 화순군, 권역별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성과

야생멧돼지·고라니 931마리 포획...농작물 피해 예방

화순군이 권역별로 운영 중인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의 활동이 농가의 농작물 피해는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내고 있다. 야생동물은 농가의 농작물을 파먹고 훼손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고, 최근 경기북부·강원지방에서 야생 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화순군은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야생동물 포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모범 수렵인 39명으로 권역별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이하 기동포획단)을 결성, 운영하고 있다. 기동포획단은 주민의 피해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해 올해 멧돼지 22마리, 고라니 709마리(총 931마리)를 포획했다. 지난해에는 1678마리를 포획했다.

군 관계자는 “권역별 기동포획단을 운영하면서 포획 실적이 크게 늘었고 농작물 피해가 줄었다”며 “앞으로도 수확기 농작물 피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를 당한 주민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군청 환경과(061-379-3592-3)에 신고, 기동포획단 출동을 요청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 곡성군, 현장에서 배우는 4-H회 양성교육 추진

소통·협력 능력 배양

곡성군이 지난 7일 4-H회 양성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4-H회 양성교육은 교과서 위주의 학문적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배우는 농촌체험을 통해 소통과 협력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추진했다.

육과고등학교 4-H회 15명의 학생들이 낙농가인 곡성군4-H연합회장(총원목장 김대선)의 농장을 방문하여 축사를 견학하고,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우유를 이용해 치즈 만들기, 피자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체험활동을 펼쳤다. 영농4-H회원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에게 농장을 소개하고



체험을 진행하는 등 청년농업인에게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주고, 학생4-H회원에게는 체험을 통해 농업의 중요성과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은 4개교(육과고, 육과초, 곡성=김광휘 기자

## 담양군, 온실가스 감축 생활 속 실천 홍보

담양군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는 탄소포인트제의 참여가구를 모집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건물)에서 절감한 전기, 수도, 도시

가스 사용량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전환해 포인트를 산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로,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을 비교해 연 2회(6월, 12

월), 최대 10만원까지 담양사랑상품권 및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참여 방법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에 접속해 가입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군 생태환경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영암

영암군  
YEONGAM-GUN

기외 과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  
일

범  
상

한  
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차랜드